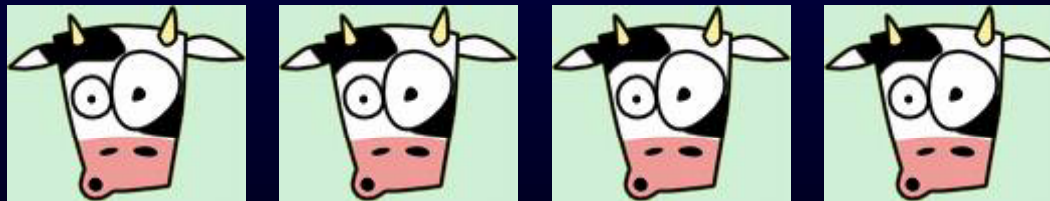




암소 아홉 마리



한 의사가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서  
의료봉사를 하면서

외국에서 선진 축산기술을 배우고 돌아온  
마을의 젊은 청년을 알게 되었다.

그는 부농(富農)임에도  
가난한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는 뜻을 갖고 있는  
훌륭한 청년이었다.

그 마을에는  
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는데.

청혼을 할 때 남자가 암소를 끌고 처녀의 집에 가서  
“암소 받고 딸 주세요”  
라고 말하는 것이었다.



특등 신부감에게는 암소 세 마리.



관참은 신부감은 암소 두 마리.





**그리고 보통의 신부감이라면 암소 한 마리로도  
승낙을 얻을 수 있었다.**



어느 날 의사는  
이 청년이 친구들과 마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 
어디론가 가는 것을 보았다.



누군가에게 청혼하러 가는 중이었다.

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몰고 나온 청혼 선물은  
살찐 ‘암소 아홉 마리’였다.



**‘암소 아홉 마리’**라면

당장이라도 부자 축에 필만한 재산이었기에.



사람들은 상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면서  
술렁이기 시작했다.

청년은 마을 촌장 집도,  
지역 유지인 바나나 농장주인집도,  
마을 여선생의 집도 그냥 지나쳤다.

그렇게 한참을 걸더니  
어느 허름한 집 앞에 멈춰 섰다.



그리고는 그 집 노인에게 청혼을 하는 것이었다.

그런데 그 노인의 딸은  
큰 키에 비해 너무 마르고 심약해 보이는 초라한 여자였다.



‘암소 한 마리’에 청혼할 상대에 불과한데  
‘암소 아홉 마리’를 데리고 간 것을 보고  
동네 청년들이 수근대기 시작했다.



심지어 그 처녀가 마법으로 청년을 홀린 것이라는  
소문까지 돌게 되었다.

**그 후 의사는 의료봉사를 마치고  
본국으로 되돌아왔다.**

가끔 그 청년을 생각할 때마다  
그 때 왜 아홉 마리의 암소를 몰고  
그 보잘것없는 처녀에게 청혼을 했는지 궁금해지곤 했다.



오랜 세월이 지나  
휴가 차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면 의사는

큰 사업가가 되어 있는 옛날의 그 청년을 만났고,  
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다.



식사를 하면서 의사는 그에게  
청혼 선물로는 과도하게 아홉 마리를 건넨 이유를 물어 보았다.



그는 빙긋 웃을 뿐  
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.

궁금증만 더 커져갈 즈음에  
찾물을 들고 한 여인이 들어왔다.

아름답고 우아한 흑인 여인이었다.



유창한 영어와  
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미소까지...



의사는 마음 속으로.

‘아~, 이 사람이 그 때의 말라깽이 처녀 말고  
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구나.

하긴 저 정도는 되어야 이 사람과 어울리지.’  
라고 생각했다.



**그때 사업가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.**

“선생님,  
저 사람이 그때 제가 청혼했던 처녀입니다.”



의사의 놀란 모습을 보고 사업가는 말을 이었다.

**“저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저 사람을 사랑했고  
저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 왔습니다.**



**아시다시피 저희 마을에선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 
여자들의 세계에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.**



**저도 그런 관습을 무시할 수 없어서  
암소를 몰고 갔습니다.**



**사실 제 아내는  
한 마리의 암소면 충분히 혼인 승낙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**



**그러나 제가 정말 사랑한 여인이  
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한 마리의 암소 값에 한정하고  
평생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.**





자신을 두 마리나 세 마리를 받았던 처녀들과 비교하면서  
움츠려져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.



**청혼 때 몇 마리의 암소를 받았느냐가  
평생 동안 자기 가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**



**저는 세 마리를 훨씬 뛰어넘는  
아홉 마리를 생각해낸 것입니다.**



**결혼하고 나서 아내에게  
공부를 하라거나 외모를 꾸미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.**

저는 있는 그대로의 아내를 사랑했고,  
또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었을 뿐입니다.

**처음에는 무척 놀라 하던 아내가  
차츰 저의 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.**



혹시

‘나에게 암소 아홉 마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까?’  
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





그 후로 아내는  
'암소 아홉 마리'에 걸 맞는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.





**그러는 사이에 아내는  
더욱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져 갔습니다.**



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 
아내를 똑 같이 사랑하지만.

**이제 아내는 결혼할 당시의 모습보다  
지금 자신의 모습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.**



**처음에 수근 대던 동네 아낙들도  
요즘은 제 아내의 밝은 미소를 사랑해 줍니다.**



**누군가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 
그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.**



**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면  
자신에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야 합니다.**



그것이 제가 ‘**암소 아홉 마리**’로 배운  
인생의 교훈이었습니다.”



“숙녀와 꽃 파는 아가씨의 차이는  
그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있지 않고,  
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받는가에 있다.”  
- 버나드 쇼 -

